# 강운태 독주속 4명 후보군 거론

**6·4 지방선거 1년 앞으로**

## 광주시장

내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둔 현재까지 광주시장 선거는 사실상 강운태 광주시장 독주체제 양상을 띠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 시장이 '행정의 달인'답게 시정 현안의 매듭을 잘 풀어나가면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는데다, 최근엔 5·18 민주화운동 왜곡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정치력, 재빠른 판단력 등이 확인되면서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게 시청 안팎의 분석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강기정, 이용섭, 장병완 국회의원이 강 시장에 대항할 잠재적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조직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진 않지만, 정국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 나설 수 있는' 경쟁력 강한 후보로 꼽힌다.

그러나 이 의원과 강 의원은 지난 5·4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낙선했거나 중도사퇴한 것이 '정치적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는 강 시장 독주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부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광주시장 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점에서, 이른바 '안철수 사람'이 광주시장 후보로 나올 경우 파괴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의 최측근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주목하고 있다.

장 교수는 오는 10월 재·보선에서 수도권으로 출마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광주가 고향인 장 교수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라인업'을 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낙연·주승용 경쟁… 조기 가열

## 전남지사

전남지사는 민주당 이낙연(4선)·주승용(3선)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일찌감치 선거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3선인 박준영 전남지사가 내년에 출마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교(광주일고) 선후배지간인 이들 의원 간 경쟁이 조기에 가열된 양상이다.

영광 출신으로 영광·함평·장성·담양이 지역구인 이낙연 의원과 여수가 지역구인 주승용 의원의 출마는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의 대결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미 이 의원은 지난달부터 전남을 4개 권역으로 나눠 22개 시·군 예산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호남지역 유일한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이 의원은 예산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각 시·군의 2014년 국비 확보에 도움을 주면서 지지 기반을 넓혀간다는 전략이다.

주승용 의원도 최근 문화예술·농업·노인분야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관련 단체와 기관을 방문하고 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3월에는 전남 22개 시·군의 절반이 넘는 13개 군을 직접 찾아 주민 숙원 사업인 사회간접자본(SOC) 현황을 챙겼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으로서 주민 숙원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였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재 민주당 내에서 두 사람 외에 유력한 도지사 후보가 없지만 '안철수 신당' 후보 등장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는 가운데 김효석 전 의원이 거명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고령의 유권자가 많은 전남지역에서 안철수 신당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새정부 100일 국정운영 성적표

# "朴대통령 잘했다" 53.5%… MB보다 높아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4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임기 5년의 국정 운영틀을 짜는 시간이었지만 북한의 거듭된 도발 위협과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등 안팎으로 닥친 시련과 도전으로 순탄치 않은 기간이었다.

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6월4일)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한 오찬에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라며 "5년을 이끌 기본 틀을 만들고, 또 북한 문제도 있고 해서 신(神)이 나에게 48시간을 주셨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을 텐데 출발이 늦다 보니 100일이라는 게 별로 실감도 안 나고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동안의 박 대통령의 성적표는 일단 여론조사로 엿볼 수 있다.

'리서치뷰'가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2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RDD 방식으로 지난 31일 실시한 박근혜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p) 결과,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53.5%를 기록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00일과 비교하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중간 정도로 김영삼 전 대통령(83%)과 비교해서는 크게 낮았지만 이명박(21%), 노무현 전 대통령(40%)보다는 높았다.

무엇보다 지난 100일간 박 대통령을 가장 곤혹스럽게 한 것은 장·차관 등 고위직의 인사파동이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등 6명의 후보자가 여론검증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 때문에 자진사퇴했다. 특히 '박근혜 인사 1호'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 성추행 의혹 때문에 지난달 15일 직권면직 처리됐다.

소통 부족도 거론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 비서진, 국무위원과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평가다.

국민대통합의 경우도 박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5년 만에 참석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반쪽짜리 기념식이 치러지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교육감, 장휘국 재선 도전 … 진보-보수 재격돌

# 전남교육감, 장만채 재판 주목… 김경택·정현석 도전

## 광주시·전남도 교육감

교육감 선거전은 이미 막이 오른 상태다.

3년 전 광주시·전남도 교육감 모두 진보교육진영이 차지하면서 광주·전남 교육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변화에 대한 진보와 보수 간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선거전을 달궜다는 분석이다.

광주시교육감은 진보와 보수, 장휘국과 반(反)장휘국 구도다.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모두 표가 분산될 경우 반드시 패할 것으로 진단, 대표주자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양 진영이 어떤 식으로 대표주자를 정리하는 지가 선거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장휘국 현 교육감의 재선 도전은 거의 확실시된다.

진보진영 내 '교통정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하지만 재선을 향한 장 교육감의 의지는 확고하다.

'릴레이' 교육가족 간담회를 열며 교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단체·종교계와 함께하는 학부모교육도 정례화해 자연스럽게 유권자와 접촉 기회를 넓히고 있다.

전교조 출신인 광주시의회 윤봉근 의원과 정희곤 의원은 학력 하락·고교 강제 배정 등 장 교육감의 실정을 비판하며 반 장휘국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박인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과 박표진 전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준비하고 있다. 김왕복 조선이공대 총장과 양형일 전 국회의원 등도 차기 교육감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남도교육감 선거 후보군은 물밑에 잠복해 있다.

후보군 대부분이 장만채 현 교육감의 최종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1심 선고가 당선무효형이긴 하지만 상당부분 혐의를 벗은데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진보진영이 계속 장 교육감을 지지할 것이냐의 여부다. 최근 지역 진보계열 단체들이 재판결과에 실망을 표시하고 장 교육감을 비난하고 나선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육감은 재판 결과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장 교육감에 맞설 후보군으로는 김경택 동아인재대 총장과 신태학 전 여수교육장, 정현석 전남도립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우치공원 결국 재공모… 금호 불참

## 광주시, 5일까지

광주시가 우치공원(패밀리랜드) 유원시설 관리자를 재공모한다.

〈광주일보 5월 28일자 1면 참조〉

광주시는 2일 "최근 우치공원 운영자 공모를 한 결과, 공모업체수 미달로 무산됨에 따라 오는 5일까지 재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시는 2개 업체 이상이 공모에 참여하면 예정가 연 4억5302만원(부가가치세 별도)보다 높은 금액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고 3년간 운영권을 줄 예정이었으나, 1개 업체만 응찰해 무산됐다.

현 우치공원 운영업체인 (주)금호리조트(이하 금호)는 이번 공모를 앞두고 각종 특혜설 등이 거론된 데 부담을 느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실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주시가 이번 공모 참여 조건으로 유희시설 6종 이상 운영 관리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개인만 가능하며,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금호 소유의 유희시설 8종과 운영시스템 사용 여부는 금호와 재협의를 해야하는 등 사실상 금호 외에는 공모에 참여하기 어렵도록 조건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현재 유희시설 6종 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는 광주·전남에선 금호를 제외하면 1곳이며, 전국적으로도 40곳에 불과하다.

금호의 운영 포기설이 알려지면서 현재 우치공원에서 근무중인 일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구성을 통한 공모 참여 등도 논의되고 있다.

우치공원의 한 직원은 "타 업체가 인수한다 해도 신규 투자가 없는한 대부분의 놀이기구가 20년을 넘겨 기계고장 등 관리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직장을 잃은 직원들과 충돌도 빚게될 것"이라며 "우치공원 내에서도 현재 일부 직원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구성을 통한 직접 운영이 가능한 지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경매뉴스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전수합니다.

교육비는 1,100만원이고
부자로 살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전수합니다.

단, 투자금이 1억이상 가진분에 한합니다.

주, 오천옥션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

광주 동구 제-008호(동구 경제과 608-2504)
유)그랜드대부
최저이자
명품대출!
▸고액대출환영
▸사업자금대출
▸미준공건물
▸공유지분대출
※자사대출/ 자유상환/ 수수료없음 ※
최저 월1%~월3% 최고 연39%이내
광주 동구 불로동 121번지 그랜드힐 116호
062)228-0114,010-4601-8942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북구 신안동 상업지역 6층의료시설 대지1026㎡ 건평2890㎡ 감정가29억 최저가20억
▷광산구 쌍암동 상업지역 3층근린시설 대지3238㎡ 건평3090㎡ 감정가72억 최저가20억
▷서구 쌍촌동 2종주거 4층상가주택 대지280㎡ 건평198㎡ 감정가5억5천만 최저가3억8천만
▷영광읍 녹사리 7층근린시설 대지5111㎡ 건평3290㎡ 감정가25억 최저가17억
단독주택
▷동구 내남동 전원주택 대지952㎡ 건평203㎡ 감정가4억3천만 최저가2억4천만
▷동구 산수동 2층단독주택 대지186㎡ 건평70㎡ 감정가2억 최저가1억4천만
공장및창고
▷광산구 월전동 평동산단 일반공업2층공장 토지5289㎡ 건물3587㎡ 감정가26억 최저가15억
▷강진읍 송덕리 공장및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11억
토지매매
▷화순읍 연양리 자연녹지 답1121㎡ 감정가4,600만 최저가3,200만
▷담양군 담양읍 상업지역 대지811㎡ 감정가2억2천만 최저가1억2천만
▷동구 내남동 1종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